

사랑을 전하는 커뮤니티, 헌혈

-2004 대한민국 커뮤니티 대축제 헌혈캠페인 현장



“이게 헌혈증 인가요? 정말 갖고 싶은데. 우와! 너 진짜 좋겠다.”

“그런데 헌혈증 꼭 헌혈해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헌혈을 막 끝내고 영광의 사각 반창고를 팔에 붙인 한혜림 양(17)이 건넨 헌혈증을 받아든 그녀의 친구들은 헌혈증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친구들과 심심해서 신촌에 놀러 왔다가 헌혈버스가 눈에 띄어 우연히 헌혈하게 되었다는 한혜림 양은 ‘평소에 헌혈을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도 없었고 작년까지는 나이가 어려서 못했다. 처음 헌혈해서 그런지 참 뿌듯하다’며 첫 헌혈소감을 밝혔다.

헌혈증을 받으며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읽어보는 한혜림 양은 언제 또 헌혈할 수 있는지 물으며 헌혈을 함께 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다음에는 같이 하면 좋겠다’며 격려하는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마음혈액원은 동호회 날개달기와 연합으로 헌혈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한마음혈액원 커뮤니티 축제 참가

파란 빛을 발산하는 높은 하늘. 청아한 아름다운 빛에 매료되어 잠시 걸음을 멈춘 순간, 펄럭거리는 소리로 시선을 돌리게 한 것은 신촌 걷고 싶은 거리의 '대한민국 커뮤니티 대축제'를 알리는 노란 플래카드였는데 그것은 파란 하늘과는 다른 생동감 넘치는 대조를 이루었다.

10월 2-3일 서울 신촌에서는 '2004 대한민국 커뮤니티 대축제'가 한창이었다. 31개(회원 150만명)의 커뮤니티가 참가한 이번 축제는 다양한 볼거리와 풍성한 공연으로 50만명의 관람객으로부터 탄성과 박수갈채를 이끌어내며 그들을 흥분시켰다. 특히 일반 축제와는 차별화된 캠페인이 실시되어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는데 그것은 바로 커뮤니티 '날개달기'의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돕기 캠페인이었다.

날개달기는 이번 축제기간 동안 새생명 100만인 서명 운동, 모금운동, 헌혈·골수기증 캠페인을 기획하여 한마음혈액원과 천주교한마음헌몸운동본부에 캠페인을 제안하였고, 두 기관에서 흔쾌히 받아들여 연합 캠페인을 벌이게 되었다. 특히 한마음혈액원은 헌혈인구 중

20대가 낮은 점을 주시하면서 이들의 헌혈동참 기회를 만들고,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헌혈 봉사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홍보를 캠페인 전략으로 삼았다.



헌혈봉사의 소중한 의미가 담겨있는 리플렛을 전달하며 동참을 유도하는데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큰 힘이 되었다(사진은 자원봉사자 최지욱 학생).



만화, 게임의 주인공 복장을 한 코스프레 회원의 화려한 행렬과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돕기 100만인 서명운동 등은 축제 관람객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축제에 참가한 다른 동호회에서는 이런 봉사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PC 전문 커뮤니티 매니안닷컴에서는 헌혈증을 가지고 부스를 찾는 관람객에게 기념 티셔츠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오전에는 인적이 드물어 스산하게 까지 느껴졌던 축제 현장은 오후 2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엄청난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며 '젊음의 거리 신촌'이라는 명성을 되찾았다. 헌혈부스를 방문한 헌혈자 중에는 유난히 여성 헌혈자가 많았다. 팔짱 낀 채 헌혈버스로 들어서는 연인들이 줄을 이었지만 여성의 부적격 비중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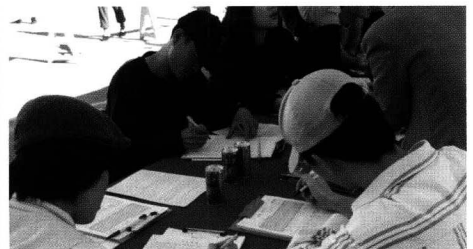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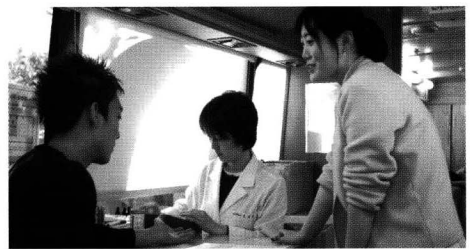
헤모글로빈(Hb)이 10 g/dl 이하인 경우는 빈혈, 12.5 g/dl 이상 되어야 헌혈이 가능하다. 헤모글로빈이 10-12.5 g/dl 인 경우는 건강은 양호하지만 헌혈 부적격 범주에 들어간다. 헌혈을 하면 헤모글로빈이 통상적으로 1 g/dl 정도 떨어지기 때문인데, 12.5 g/dl 인 경우에는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하는 사람은 헌혈이 가능하지만, 적절한 휴식을 필요로 하거나 마른체형, 혈액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헌혈을 권하지 않고 있다.

여성들은 자랑스러움 반 부러움 반으로 헌혈을 마친 남자친구의 팔짱을 낀 채 종종 걸음으로 헌혈버스를 빠져나갔다.

직원들은 몰려드는 헌혈자로 인해 잠깐 쉴 수 있는 짬을 내기 어려웠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졌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웃음으로 반겨주는 직원들에게 회답이라도 하듯 헌혈자들은 정을 듬뿍 담아 '수고하세요' 라는 말을 잊지 않고 건넸는데, 아마도 헌혈자의 말 한마디가 한마음혈액원 식구들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축진제 역할을 한 것 같다.

함께 배우고, 즐기고, 누리는 커뮤니티에는 소중한 꿈과 미래가 있다. 커뮤니티 축제기간 동안 참가자와 관람객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봉사의 기회가 제공되었고, 이런 기회를 십분 활용하고 즐길 줄 아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그들,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매우 소중한 꿈과 미래를 심어 줄 수 있는 힘과 열정을 가졌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칭하고 싶어진다.

'당신은 진정한 문화인입니다.'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헌혈 봉사에 많은 관람객이 동참하였다.